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⑲ 무기수 김병호

'가난' 벗으려 황소처럼 살다 간 무기수

6·25때 억울한 반역 혐의
26년간 무기수로 징역살이

가난 대물림 끊기 위해
죽기 전까지 노역에만 몰두

손자 위해 일당 전액 저축
"황소처럼 성실하게 살거라"

형 집행대기 상태로 언제 생명이 박탈될지 알 수 없는 사형수, 그리고 이미 종신형이 선고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수인생활이 지속되는 무기수. 앞서 소개한 18명의 사형수에 이어, 이번 19번째 재소자부터는 무기수의 삶을 조명한다.

'감옥에서 맞는 죽음'을 둘러싼 그들의 삶은 상반된다. 형 집행이 불시에 정해지기에 항시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사형수와 달리, 무기수는 중병 환자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본인도 자신의 죽음 시점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막연하게 이어지는 삶을 감내해야 된다. 무기수의 삶은 그렇게 출소의 희망도, 죽음의 기약도 없이 교도소에 몸이 묶인 채 교정일상을 반복하는 삶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무기수는 수인생활 내내 가난이란 멍에를 지고 황소처럼 살다간 김병호(55)씨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쉼 없는 26년을 보냈다.

김 씨와는 1970년대 초 대구교도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가난한 농사꾼 출신의 사형수였다. 6·25전쟁 당시 적군을 도운 혐의로 투옥됐다.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고 포탄을 지게에 나르라는 적군의 협박 앞에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그때 김 씨가 협박에 맞섰다면 김 씨는 감옥이 아니라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 씨는 모범적인 재소생활 덕분에 9년 4개월 만에 무기로 감형됐다.

김 씨에게는 손자가 있었다. 김 씨의 아들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죽었다. 아버지를 여읜 손자를 둔 김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대대로 가난에 시달린 김 씨는 손자에게만큼은 그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죽은 아들대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자를 위해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나와 만나는 개인교회(敎誨)시간 외에는 일절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 급여 5원을 받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일에만 쏟았다.



'황소 할아버지'로 불린 김병호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교도소에서 5년간 일한 돈을 모아 손자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했다. 사진은 고령의 재소자들을 만나고 있는 삼중 스님(왼쪽 뒷모습).

교도소 내 그를 아는 이들은 김 씨가 지독하다고 손가락질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도무지 돈 한 푼 쓰는 법이 없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어느 날은 인기가수 이미자 씨가 대구교도소로 위문공연을 왔다.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이미자가 온다는 소식에 그 날은 온 교도소가 들썩였다. 지옥 같은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에게 공연은 흔치 않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공연을 서로 보겠다고 설치는 3000여 명의 재소자들을 강당에 모두 앉힐 순 없었다. 따라서 교도소는 매번 모범수를 우선 입장시키곤 했다.

조용히 일만 하는 김 씨는 모범수 중의 모범수였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도 김 씨는 강당에 발 한 번 붙인 적이 없었다. 이미자가 아니라, 어떤 유명가수가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김 씨의 사연이 궁금해진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리 일만 하십니까."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스님. 제가 수감되기 전 아들놈을 잃었는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또 밟힙니다. 그 손자에게만은 꼭 어떻게든 돈을 모아 황소 한 마리를 사주고 싶어서요. 사형수로 들어와 이젠 무기수가 되었는지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마지막 소망이자, 할애비가 손주놈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비 노릇이겠지요."

사연이 알려진 그는 '황소 할아버지'란 별명을 가지게 됐다. 이 황소할아버지는 5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결국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마련했다.

김 씨는 모은 돈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전하며 말했다.

"이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워다오. 다 키운 황소를 팔아 아이 몫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게으름 피우지 않는 황소처럼 살라는 뜻에서 할애비가 주는 것이라고. 내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이후 그는 병을 얻어 교도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난의 대물림에 한 맺힌 김 씨는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쟁기질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들대신 아버지 노릇을 다하고 기꺼이 눈 감은 황소할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⑱ 명성 스님 · 목정배 교수님

어느 날 길을 가다 미술관이 보여 들어가니 화가에게 묻는 글이 입구에 쓰여 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까치 그리는 사람이오."

이 글을 보는 순간 스님이 겹쳐졌다. 하늘에는 명성(明星)의 별이 떠있고 땅에는 명성(名聲)의 이름이 떠돌고. 스님, 무엇을 하는 스님인지요?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로 답을 받으며 삼배를 올렸다.



미천당 철우 법사로도 불린다. 생전에 세제(世諦)불교 운동을 하시며 많은 법사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교수님이 창간하신 포교지 〈법수레〉는 올해 제300호가 출간되었다. 지난 10월 3일 정각원에서 세제불교 운동 30년 기념 법회가 열렸다. 세제불교운동 30년을 정리하고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세대와 미래 불교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찬탄하는 마음과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법수레〉 297호 '사자후의 여향'에 실린 '잘 돌아가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 발췌해 본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빙빙 돌고 있지. 유행가의 가락처럼 허망한 형상을 쳐다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허상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가."



九龍, 금룡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 용왕단 조성 및 연못 - 분수기능
■ 소원성취단(소원지.소원패등)
■ 소장사찰 : 여수향일암 강화보문사등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